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231-257  
<https://doi.org/10.29212/mh.2024..130.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940-50년대 군가 음반 연구

이준희 | 전주대학교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1940년대 후반 군가 음반의 흔적
3. 전시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
4. 전후 군가 음반의 위탁 제작
5. 맺음말

**초 록** 한국 군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새로운 군가가 많이 만들어졌고, 군가를 수록한 음반을 제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가 유통에서 음반이 담당하는 역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1940-50년대 초기 군가 음반은 당대의 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가치가 크며, 연구 대상으로서도 중요하다. 군가 음반으로 볼 수 있는 최초 사례는 1949년에 이미 등장했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 제작은 더욱 확대되었다. 전쟁 중에는 특히 대구 소재 오리엔트레코드가 많은 음반을 발매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울 소재 여러 음반회사들이 군가 음반 제작을 이어갔는데, 1950년대 유력 음반회사였던 유니버살레코드와 오아시스레코드는 군 당국의 위탁을 받는 형식으로 제작을 수행했다. 1950년대 말까지 여러 음반회사에서 발매된 군가 SP음반은 최소한 20장 이상 확인되며, 대중음악과 작가음악 분야를 망라한 여러 음악가들의 참여로 녹음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동진, 박시춘, 김희조 등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군가, SP음반, 오리엔트레코드, 유니버살레코드, 오아시스레코드, 김동진, 박시춘, 김희조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 1. 머리말

군가는 말 그대로 군대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군가도 있고, 외부에서 만들어진 뒤 군대로 유입되어 불린 비공식적인 군가도 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근대시기에 군가가 불리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지금 상세히 알기 어렵지만, 19세기 말 이후로는 군대에서 불린 노래의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예컨대,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직전에는 “시위대 병정들이 하는 군가”의 가사가 신문에 실렸고,<sup>1)</sup> 이듬해 1898년에도 시위2대대 대대장 윤철규(尹喆圭)가 새로운 군가를 만들었다는 소식과 그 가사가 역시 신문에 소개되었다.<sup>2)</sup> 대한제국 시기에 군가가 실재했던 것은 이처럼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나, 다만 그것이 제도적인 배경을 갖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제국이 몇 년 지나지 않아 1910년에 망해 버렸고, 군대는 그보다 앞서 1907년에 이미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권이 사라진 뒤 군가는 상이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군이나 광복군의 군가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군가가 교육이나 방송·음반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국외의 군가는 역사적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대신 당시

1) “잡보(시위대 병정들이 하는 군가인데)”, 『독립신문』(1897년 6월 10일)

2) “잡보(새 군가)”, 『독립신문』(1898년 11월 1일)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국내에 유포된 일본 군가는 당대는 물론 광복 이후까지도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 만큼<sup>3)</sup> 대중에게 보다 익숙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군가로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군가가 의미 있는 문화 현상으로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한 때는 역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왕이나 외적의 군대가 아닌 새로운 국민의 군대에서 불린 군가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도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고, 1950년 6월 이후 만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실제로도 대중의 일상에 밀착한 존재가 되었다.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그 무렵,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의 초기 군가 역사이다. 그리고 군가의 여러 가지 존재 형태 가운데 음반이라는 매체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군가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녹음해 음반으로 제작, 배포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군가 보급의 가장 중요한 경로는 예나 지금이나 구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군내 교육이므로, 악보나 음반 같은 매체의 역할은 보조적인 데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가도 음악인 이상 그 실체를 당대 소리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음반 자료의 중요성은 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40-50년대 초기 군가 음반의 구체적인 면모를 구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군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선행 작업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주요 대상이 음반이었던 경우는 전혀 없었으므로, 군가 연구의 세부 영역 확장으로서도 이 글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군가 음반의 구체상은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

3) “사라바 라바울”, 『조선일보』(1961년 5월 14일)

다. 첫 번째는 전쟁 발발 이전인 1940년대 후반, 다음은 전쟁이 진행된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은 휴전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이다. 국산 LP(Long Play, 1분당 33.3회전)음반 생산이 시작된 때가 1958년 여름이므로,<sup>4)</sup> 초기 군가 음반은 모두 LP 이전 단계인 SP(Standard Play, 1분당 78회전)음반, 그 중에서도 직경 10인치 SP음반으로 제작이 이루어져 음반 한 장에 앞뒤로 노래 한 곡씩이 수록되어 있다는 기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군가 작품의 성격이나 음반 제작 경위에 각각의 특징이 또 있기도 하다. 이하 본문에서는 그러한 시기별 특징을 실제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2. 1940년대 후반 군가 음반의 흔적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시기에 해방병단과 국방경비대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정식으로 체계를 갖춘 때는 역시 정부 수립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체계 가운데 하나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 작업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미 1948년 3월에 설립된 군악학교<sup>5)</sup>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당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1948년 12월에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sup>6)</sup>

4) 이준희, “1950년대 유성기음반사 연구 - 6대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6호(2006): 201

5) “군악학교 창설”, 『조선일보』(1948년 3월 19일)

6) “군악 80여 곡 국방부서 작성 완료”, 『동아일보』(1948년 12월 9일)

국방부에서는 군대 생활면에 있어 가장 청량제라고 할 군악의 작곡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오던 바 이번 행진곡 60여 곡과 예식 기타 작전 동작 등 20여 곡을 합하여 80여의 작곡을 끝마치어 군악학교에서도 이들 중심으로 보급을 시키게 되었으며 동시에 전국 각 연대에도 이 곡을 ‘레코-드’로 취입하여 불일내로 각각 배부하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곡 내용의 중점은 주로 구한국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군악과 현재 각 연합국에서 취하고 있는 행진곡 등을 중심으로 편곡한 것으로 군 정신의 작흥은 물론 한국 남아의 용맹심을 추입시킨 명곡들이라고 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군악은 가사 있는 노래가 아니라 군악대가 연주하는 행진곡이나 의식 음악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군악뿐만 아니라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군가 역시 이 무렵 대거 정비,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군본부 지정 출판사인 병학(兵學)연구사에서 1949년 가을에 출간한 『군가집』 광고에는 “군·경·청년·학생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불러야 할 군가” 220곡이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의 1년 반 동안 심혈을 경주”한 작업으로 편찬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sup>7)</sup> 1년 반 전이면 1948년 봄 무렵이므로, 군악학교 설립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특히 주목이 되는 점은 새롭게 정비된 군악을 레코드로 취입(녹음)해서 각 연대에 배부하기로 되었다는 대목이다. 군악이 음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라 보도되었다면 군가 음반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 이후 실제로 군악 음반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음반을

7) 『군가집』 광고, 『조선일보』(1949년 9월 28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당시에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광복 이전 1930년대에 음반을 녹음할 수 있는 설비는 콜럼비아(Columbia)레코드, 오케(Okeh)레코드, 빅터(Victor)레코드, 시에론(Chieron)레코드 등 일본 음반회사의 서울 지점에 일부 갖추어져 있었으나,<sup>8)</sup> 음반을 찍어내는 공정은 전적으로 일본 본사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광복 이후 만 2년 동안은 국산 음반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판용 음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sup>9)</sup> 광복 이후 첫 번째 국산 음반은 최성두(崔聖斗)가 설립한 고려(高麗)레코드에서 1947년 8월에 발매한 <애국가>, <조선의 노래>, <건국의 노래> 등을 수록한 것이었는데,<sup>10)</sup> 고려레코드 역시 회사 자체는 1946년 7월에 이미 설립되었으나<sup>11)</sup> 실제 음반 발매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1947년 8월 당시 고려레코드 광고를 보면 특약점과 기술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와 함께 “단체가 취업 수응(酬應)”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자체 기획으로 제작한 음반을 판매하는 것과 아울러 각종 단체의 노래도 주문에 맞춰 녹음, 제작하는 것이 고려레코드의 주요 사업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려레코드가 “문교 당국의 교육가와 각 은행 방송국 청년단체 각 회사 등의 단체 주문”을 받아 음반을 만들었다는 1년여 뒤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13)</sup> 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레코드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단체가 목록을

8) 이준희, “일제시대 경성에서 이루어진 음반 녹음의 경위와 의미”,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2009): 52-60

9) 이준희, “1940년대 후반(1945-1950) 한국 음반산업의 개황”, 『한국음반학』 14호 (2004): 144-148

10) 고려레코드 광고, 『동아일보』(1947년 8월 3일). 1번 음반에 현행 <애국가>(신곡)와 <Auld Lang Syne> 곡조로 부른 <애국가>(구곡)가 앞뒤로 함께 실렸다.

11) 고려레코드 광고, 『한성일보』(1946년 7월 26일)

12) 고려레코드 광고, 『경향신문』(1947년 8월 24일)

13) “조악한 레코드 장안의 거리에 대범람”, 『평화일보』(1948년 10월 7일)

볼 수 있는 광고(1948년 봄 추정)가 간접 확인되기도 하며,<sup>14)</sup> 그 중 <(조선)민족청년단가>(필자 소장)와 <금융조합(연합)가>(김득성 소장)<sup>15)</sup>는 음반 실물까지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악이나 군가, 또는 각급 부대가를 녹음한 음반이 고려레코드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한데, 실제 음반이나 관련 문헌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려레코드 외에도 1948년 이후 다른 음반회사들이 뒤를 이어 속속 등장했으므로, 그 관련 자료를 보면 군가 음반이 전쟁 발발 이전 1940년대 말에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실물이 확인되는 첫 번째 군가 음반을 제작한 곳은 1949년 3월에 첫 광고를 내고<sup>16)</sup> 4월부터 음반을 발매한<sup>17)</sup> 럭키(Lucky) 레코드이며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도 있다.

끝으로 해방 후 이 땅에서 처음 계획된 군가 레코드는 요새 펍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로는 심용사의 무훈을 찬미하는 UN고지 <용진가>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단다. 이 작사에 육군 중령 이영순 씨 - 다음에 장훈 씨 노래에 <용사의 노래>도 좋단다.<sup>18)</sup>

강운용(姜雲溶)이 설립한 럭키레코드는 첫 작품으로 낸 가수 현인(玄仁)의 데뷔곡이자 대표작인 <신라의 달밤> 등이 크게 히트하면서 당시 여러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서 얻은 여유 덕분이었는지 대중가요 외에 이채를 띠는 다양한 내용의 음반을 몇 가지 아울러 제작하기도

14) 이준희, “6.25전쟁과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 『대중음악 SOUND』 3호(2011): 38

15) 광고에는 <금융조합연합가>, 음반 딱지에는 <금융조합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같은 곡으로 추정된다.

16) 럭키레코드 광고, 『동아일보』(1949년 3월 13일)

17) 럭키레코드 광고, 『경향신문』(1949년 4월 6일)

18) “거리에 흐르는 유행가”, 『삼천리』(1949년 12월)



했다. 위 기사에 등장하는 군가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와 〈용사의 노래〉가 앞뒤로 실린 음반(필자 소장)이 1949년 10월 신보(新譜)로 발매되었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가요’ 음반도 세 가지가 확인된다.<sup>19)</sup>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음반도 1950년에 럭키레코드에서 제작되었는데, 서울특별시경찰국장 김태선(金泰善)의 강연 〈민경일심(民警一心)〉과 동요 〈순경 아저씨〉 음반이 기록과 실물로 전하고 있다.<sup>20)</sup>

그런데, 럭키레코드에서 음반으로 낸 첫 군가 두 곡은 작품 성격이 통상적인 군가와는 다소 다른 편이다. 기사에서 군가라고 언급을 했고 가사도 군대 관련 내용이기 는 하지만, 음반 딱 지나 신문 광고에는 곡종(曲種)을 그렇게 명시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기에 적당하도록 고려해 만들어 지는 보통 군가와 달리, 곡조가 보다 전문성 있는 가창에 어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가사에도 구체적인 서사가 등장한다.

비둘기고지에는 초목도 운다/ 적탄이 비 오는 듯 아군의 용전/  
들었나 포연 속에 격분의 얼굴/ 서 상사는 원합니다 특별공격을/  
부대장을 울려 주는 애원의 소리/ 장하다 우리 용사 아 십용사

UN고지에는 적구(赤狗)도 운다/ 토치카 파괴 작업 십삼시 이십  
분/ 붉고 검은 얼굴 위에 방긋 웃으며/ 내 한 골편(骨片) 평양까지  
최후의 부탁/ 지축을 흔드는 폭발의 소리/ 장하다 우리 용사 아 십  
용사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 가사

19) 이진원, “해방 공간의 유성기음반 문화 연구”, 『해방공간 및 그 전후의 음악사』 (2014): 85-87

20) 이진원, 위의 글: 83

두 곡은 사실 일반 군인들이 제창 형식으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음악극 공연의 일부인 주제가로 만들어진 노래였다.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에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는 가운데 서부덕(徐富德) 등 국군 용사 열 명이 육탄공격을 감행해 순국한 이른바 ‘육탄 십용사’ 사건<sup>21)</sup>이 일어났고, 그 일을 극화한 추도 공연 〈육탄 십용사〉가 8월 6일부터 서울 극장 시공관(市公館)에서 막을 올렸는데,<sup>22)</sup> 그때 무대에서 불렀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가사에 등장하는 ‘서 상사’는 바로 육탄공격을 주도한 서부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음악극 〈육탄 십용사〉의 원작자인 이영순(李永純) 중령과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박시춘(朴是春)이 바로 음반에 담긴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와 〈용사의 노래〉 가사와 곡을 만든 작가들이기도 했다. 공연이 많은 화제를 뿌리며 전국 순회까지 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대표적인 주제가 두 곡을 럭키레코드에서 음반으로도 제작했던 것이다.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와 〈용사의 노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L7706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

이영순 중령 작사, 박시춘 작·편곡, 현인 노래, 럭키관현악단 반주

<용사의 노래>

이영순 중령 작사, 박시춘 작·편곡, 장훈(張勳) 노래, 럭키관현악단 반주

군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럭키레코드 음반에 수록된 두 곡은 군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

21) “십용사의 장렬한 전투 경과”, 『동아일보』(1949년 5월 21일)

22) “십용사 추도 공연”, 『경향신문』(1949년 8월 4일)

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0년대 말에 많은 군 관련 음악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음반에 담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 전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더욱 많은 군가가 또 만들어졌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군가 음반도 그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 3. 전시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

지난 2010년 5월, 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 국립극장 공연 예술박물관에서 <6·25전쟁, 공연예술의 기억과 흔적> 전시가 열렸다. 다양한 당시 유물과 함께 전쟁 기간 전후에 활동한 예술가들의 생생한 증언 영상도 함께 전시되었는데, 그 영상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sup>23)</sup>

군가 또 클래식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통 레코드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군가는 내가 여러 판 맨들었죠. 그 이선근 씨가 대령 때 대구 큰 성당, 큰 성당 거게서 정훈감을 할 때, 그때 그 <가고파> 김동진 씨가 군가보급단장을 했었거든. 그래 그 양반하고 나캉 참 친하고 내보다 세 살 위에 지금 아마 그 양반이 살았으면 구십서이고. 그래 군가보급단장을 시문서 그 군가를 여섯 곡을, 여섯 곡 같으면 레코드판 두 장이지 앞뒤로. 내가 <육군가>하고 대구에 조 뭐 거도 내보다 한두 살 우엔데 클래식 계통의 그 음악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 곡을 인자 제일 끝에 여섯 곡째 <무기 애호의 노래> 고거 하고 여섯 곡을 레코드판 두, 석 장을 내가 맨들어서 한 그것도 4-5천 장 정도 맨들어서 국방부에다 내가 보내 주고 이랬죠.

23) 전시 영상 사본을 필자가 소장하고 있으며, 영상 전체 분량은 5분 17초이다.

증언의 주인공은 1949년 여름 대구에서 동양(東洋)레코드회사, 즉 오리엔트(Orient)레코드를 설립해<sup>24)</sup> 운영하고 작곡가로도 활동했던 이병주(李炳主)이다. 몇 가지 작은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이병주의 증언은 전시에 군가 음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살피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무엇보다 이병주가 언급한 두 곡을 포함한 여섯 곡, 음반 세 장의 내용이 거의 모두 확인되고 있다. <육군가> 음반은 뒷면 수록 곡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른 두 장은 <상이군인가>와 <진격의 노래>(이경호 소장), <병기 애호의 노래>와 <행군의 아침>(필자 소장)으로 앞뒤가 구성되어 있다. 이 군가 음반 세 장은 여타 오리엔트레코드 음반들과는 달리 음반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육군의 상징인 별을 사용한 딱지 디자인이 모두 같으므로, 특별히 한 세트라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곡 제목이나 작가, 가수의 이름은 각각 따로 표기되었지만 ‘동양음반공사 제작’, ‘조국통일 구국회 발매’, ‘육군본부 정훈감실 감수’ 등 표기는 공통으로 등장한다.

음반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병주 증언에 등장하는 이선근(李瑄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있다가 1950년 2월에 국방부 정훈국장에 취임했고,<sup>25)</sup> 이어 3월에는 육군 대령으로 임명되었다.<sup>26)</sup>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육군본부 정훈감도 겸임을 했고,<sup>27)</sup> 1950년 10월에는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기도 했다.<sup>28)</sup> 1951년 2월 당시 육군본부 정훈감이 박영준(朴英

24) 오리엔트레코드의 설립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으나, 그 첫 광고를 통해 1949년 여름임을 알 수 있다. 동양레코드회사 광고, 『영남일보』(1949년 7월 8일)

25) “정훈국장에 이선근 씨 취임”, 『경향신문』(1950년 2월 14일)

26) “정훈국 이선근 씨 육군 대령에 임명”, 『조선일보』(1950년 3월 17일)

27) 이선근, “나의 이력서 40”, 『한국일보』(1975년 3월 7일)

28) “이선근 대령 준장으로 승급”, 『조선일보』(1950년 10월 24일)

俊) 대령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sup>29)</sup> 겸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선근은 이후 1952년에 봄 무렵 예편한 뒤 서울대학교로 복귀했으므로,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은 이선근의 예편 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주 증언에서 군가보급단장으로 등장하는 작곡가 김동진(金東振)은 1952년 2월 이후 부산 해군정훈음악대에서 활동한 기록이 확인되므로,<sup>30)</sup> 이 또한 음반 제작 시점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평안남도 안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동진은 1930년대 말부터 만주국 신징(新京)교향악단에서 활동하다가 광복 직전에 평양으로 돌아왔고, 북한 정권 치하에서 잠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전쟁 발발 이후 월남해 대구에서 군가보급단장을 맡았다.<sup>31)</sup>

이병주의 증언 내용과 다른 기록들이 모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은 1·4후퇴 이후 대구 계산(桂山)성당에 자리 잡은 국방부 정훈국에서 이선근과 김동진이 함께 일했던 1951년에 제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제작 시점을 알려 주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1952년 4월에는 군가 음반 보급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경상남도 병사구(兵事區) 사령부의 회의 내용을 소개한 기사에 의하면, “다방에는 반드시 군가 음반을 사용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sup>32)</sup> 기사에 등장하는 군가 음반이 오리엔트레코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1951-52년 당시 음반 제작이 가능했던 회사는 오리엔트레코드를 비롯해 몇

29) “신 장관 중부전선서 총공격을 진두지휘”, 『동아일보』(1951년 2월 24일). 박영준은 이선근이 준장으로 정훈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부국장이었다고 한다. 박시춘, “나의 이력서 34”, 『한국일보』(1978년 4월 12일)

30) “해군정훈음악대 6회 연주회 개최”, 『경향신문』(1952년 2월 28일)

31) 김동진 구술, 전정임 채록, 『2003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3: 김동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41-45, 55-57

32) “다방은 군가 음반 사용, 국산물 애용 장려”, 『마산일보』(1952년 4월 5일)

군데 되지 않았고, 그 중 실제 군가 음반이 실물로 확인되는 곳은 오리엔트레코드가 유일하므로,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1952년 7월에 대구 문화극장에서 열린 군가콩쿨대회 광고<sup>33)</sup>를 보면 후원 단체로 육군본부 정훈감실과 오리엔트레코드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 또한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과 관련이 있는 자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병주가 증언한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 세트 세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미표기

<육군가>

최달희 작사, 김동진 작곡

뒷면 곡 미상

\* 음반번호 미표기

<상이군인가>

유호(兪湖) 작사, 장수철(張壽哲) 작곡, 정문숙(鄭文淑) 노래, 국방부정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진격의 노래>

이선근 작사, 안병소(安柄瑫) 작곡, 박승유(朴勝裕) 노래, 국방부정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 음반번호 미표기

<병기 애호의 노래>

박두진(朴斗鎭) 작사, 김동진 작곡, 이보림(李寶林) 노래, 국방부정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행군의 아침>

김영삼(金永三) 작사, 김동진 작곡, 변훈(邊焄)<sup>34)</sup> 노래, 국방부정

33) 군가콩쿨대회 광고, 『대구매일신문』(1952년 7월 14일)

34) 음반 딱지에는 '邊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인쇄 오류이다.

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그런데, 오리엔트레코드에서 제작한 군가 음반은 이병주 증언에 등장하는 3매 1세트 외에 다른 예도 추가로 확인이 된다. 우선 〈애국가〉와 〈휘날리는 태극기〉가 앞뒤로 수록되고 딱지에 태극기가 그려 있는 음반(한국대중음악박물관 소장)이 있으며,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역시 정확한 제작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정황상 전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곡의 편곡자와 반주자가 모두 김희조(金熙祚)와 육군군악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김희조는 1948년 7월에 군악장교로 임관한 뒤 1950년 9월 이후 육군본부 군악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5)</sup>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가을에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하던 『승리일보』를 통해 발표된 가사에 곡을 붙인 군가 〈승리의 용사〉<sup>36)</sup>도 1951년에 오리엔트레코드 음반(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소장)으로 발매되었다. 이 역시 음반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딱지 디자인 형태로 보아 1951년에 발매된 것이 확실시된다. 별과 태극기가 등장하는 앞서 본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 디자인과 달리 1951년에 발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다른 대중가요 음반 딱지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1952년에는 〈제2국민병의 노래〉 음반(필자 소장)이 또 오리엔트레코드에서 나왔는데, 뒷면 곡은 대중가요에 가까운 〈북으로 가자〉라는 곡이다. 〈승리의 용사〉와 〈제2국민병의 노래〉는 모두 앞서 럭키레코드 음반에서도 본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이 만들었으며, 박시춘은 군가인 동시에 대중가요로 전시에 가장 널리 불린 〈전우야 잘 자라〉를 비롯해 〈육군제1훈련소가〉

35) 윤중강·김용현, 『남에는 김희조』, 서울: 민속원, 2002, 75

36) 박시춘, “나의 이력서 33”, 『한국일보』(1978년 4월 11일)

등 당시 만들어진 여러 군가의 작곡자이기도 하다. 그가 이처럼 군가 작곡에 적극 관여했던 이유는 수복 직후부터 축탁 형식으로 국방부 정훈국 문예중대, 육군제1훈련소 군예대 등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sup>37)</sup> 〈제2국민병의 노래〉 음반 딱지에도 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승리의 용사〉 예와 같이 디자인 형태로 보아 1952년 발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세트 외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미표기

<애국가>

김희조 편곡, 이영숙(李英淑)·육군군악대합창반 노래, 육군군악대 반주

<휘날리는 태극기>

정동주(鄭東葑)<sup>38)</sup> 작사·작곡, 김희조 편곡, 이종운(李鍾運)·육군군악대합창반 노래, 육군군악대 반주

\* 음반번호 미표기

<승리의 용사>

나병기(羅炳基) 작사, 박시춘 작·편곡, 오리엔트합창대 노래  
뒷면 곡 미상(딱지 유실)

\* 음반번호 미표기

<제2국민병의 노래>

유호 작사, 박시춘 작·편곡, 강준희(姜俊熙) 노래

<북으로 가자>

유호 작사, 박시춘 작·편곡, 신세영(申世影) 노래<sup>39)</sup>

---

37) 박시춘, 앞의 글

38) 음반 딱지 일부가 지워져 있어 확실치 않으나 ‘葑’로 추정된다.

39) 음반 딱지에는 신세영 노래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곡을 실제 들어 보면 여성 가수가 함께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목소리로 보아 금사향(琴糸響)으로 추정된다.



## 4. 전후 군가 음반의 위탁 제작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형태로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가 음반 제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전시 군가 음반 제작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구 오리엔트레코드는 휴전과 환도(還都) 이후 음반산업의 중심지가 서울로 다시 이동하면서 사세가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군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서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음반회사들이 군가 음반 제작을 계속 이어 갔다.

전후 군가 음반 제작 사례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스타(Star) 레코드의 〈승리의 노래〉와 〈날려라 해병대기〉이다. 스타레코드는 김흥산(金興山)과 손영준(孫泳俊)이 함께 설립했으며,<sup>40)</sup> 두 곡은 1954년 7월 제1회 신보로 발매된 음반 네 장에 포함되었다.<sup>41)</sup> 〈승리의 노래〉는 〈애국가〉와 함께 같은 음반 앞뒤로 수록되었고(부산근현대역사관 소장), 〈날려라 해병대기〉는 대중가요 〈삼다도 소식〉과 같은 음반에 수록되었다(이병권 소장). 〈승리의 노래〉는 제목이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곡이 1950년과 1951년에 각각 만들어졌는데, 1950년 곡은 김광섭(金光燮)이 작사하고 이흥렬(李興烈)이 작곡한 “바라보니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고,<sup>42)</sup> 1951년 곡은 이선근이 작사하고 권태호(權泰浩)가 작곡한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이다.<sup>43)</sup> 알려지기로는 1951년 〈승리의

40) 박찬호, 『한국가요사 2』, 서울: 미지북스, 2009, 223

41) 스타레코드 광고, 『동아일보』(1954년 7월 4일)

42) “연합군환영가 승리의 노래를 제정”, 『대구매일신문』(1950년 8월 3일)

43) “승리의 노래”, 『대구매일신문』(1951년 1월 29일). 지면에는 작곡자 이름이 박태호(朴泰浩)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노래>가 더 유명하지만, 스타레코드 음반에 실린 것은 1950년 <승리의 노래>이다. 지금도 <해병대 행진곡>이라는 바뀐 제목으로 해병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군가 <날려라 해병대기>는 가사에 등장하는 도솔산 전투가 벌어진 1951년 6월 이후, 곡을 쓴 대중가요 작곡가 손목인(孫牧人)이 일본으로 밀항한 1952년 6월<sup>44)</sup> 이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며, 2년여 만에 스타레코드를 통해 음반으로 만들어졌다. 스타레코드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KB3002

<날려라 해병대기>

손석우(孫夕友) 작사, 손목인 작·편곡, 신세영 노래<sup>45)</sup>

<삼다도 소식>

유호 작사, 박시춘 작·편곡, 황금심(黃琴心) 노래, 스타관현악단 반주<sup>46)</sup>

\* 음반번호 KB3004

<애국가>

해군정훈음악대 연주

<승리의 노래>

김광섭 작사, 이흥렬 작곡, 사상필(史相弼)·이관옥(李觀玉)·합창단 노래

스타레코드 이후 1955년부터 1957년까지 다른 음반회사에서도 군가 음반을 여러 장 발매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음반은 군 당

44) “손목인 신카나리아 등 칠명! 무엇 때문에 갔나? 의혹 다대”, 『경향신문』(1952년 6월 19일)

45) 음반 딱지에 제목이 <날려라 해병대>로, 작가 이름이 뒷면 <삼다도 소식>의 유호와 박시춘으로 바뀌어 표기된 경우도 있다.

46) 음반 딱지에 제목이 <삼다도>로, 작가 이름이 뒷면 <날려라 해병대기>의 손석우와 손목인으로, 관현악단이 경음악단으로 바뀌어 표기된 경우도 있다.

국이 민간 음반회사에 위탁해서 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유니버살(Universal)레코드에서는 국방부 정훈국의 의뢰를 받아, 오아시스(Oasis)레코드에서는 육군본부 정훈감실의 의뢰를 받아 각각 ‘국방부 정훈국’, ‘육군레코드’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제작했다. 앞서 본 오리엔트레코드 3매 1세트 군가 음반이 ‘조국통일구국회 발매’로 표기되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군 당국이 직접 음반을 녹음하고 찍어낼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민간 위탁 방식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유니버살레코드와 오아시스레코드는 195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른바 ‘6대 음반회사’에 속한 곳이었다.<sup>47)</sup>

1954년에 김재창(金在昌)이 설립한 유니버살레코드<sup>48)</sup>에서 제작한 ‘국방부 정훈국’ 군가 음반은 지금까지 확인된 규모가 총 네 장이다. 음반 각 면마다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0001과 0002, 0005와 0006, 0007과 0008의 내용이 현재 알려져 있다. 0003과 0004 음반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만들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최소한 네 장이 발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번호가 가장 앞서는 0001, 0002 음반에는 〈6·25의 노래〉와 시 낭독 〈칠월의 노래〉가 수록되었는데, 지난 2008년에는 이 음반이 1950년대 초반에 제작된 ‘군가 음반 1호’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sup>49)</sup>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1949년에 이미 럭키레코드 음반이 만들어졌으므로 ‘군가 음반 1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제작 시점도 보도와 같은 1950년대 초반이 아니라 1955년 3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

47) 나머지 네 곳은 도미도(Domido)레코드, 미도파(美都波)레코드, 신신(新新)레코드, 킹스타(King Star)레코드이다.

48) 박찬호, 앞의 책, 202

49) “‘6.25의 노래’ 실린 군가 음반 1호 발굴”, 『연합뉴스』(2008년 6월 25일)

유니버살레코드는 1954년 9월에 〈이별의 부산정거장〉, 〈봄날은 간다〉 등 대중가요 음반을 제1회 신보로 발매했는데,<sup>50)</sup> 당시 음반 딱지 테두리에는 “MADE BY YUNGCHANG IND. CO. LTD SEOUL KOREA”라는 표기가 보인다. 이는 유니버살레코드의 제조사가 영창(英昌)산업임을 밝히는 내용이며, 유니버살레코드 초기 음반에서만 발견이 된다. 이후 1955년 3월에는 유니버살레코드에서 새로 발매한 음반을 홍보하는 광고가 또 신문에 게재되었고,<sup>51)</sup> 음반 내용 소개에 이어 “유니버살레코드제작소는 금반(金般) 상호를 고려레코드제작소로 변경하고 계속 좌기(左記)와 같은 상표로서 발매”하게 되었다는 안내가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 발매된 유니버살레코드 음반 딱지 테두리에는 그러한 상호 변경을 반영해 전과 달리 “MADE BY KOREA RECORD MANUFACTORY SEOUL KOREA”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유니버살’에서 ‘고려’로 상호가 바뀐 이유는, 앞서 본 고려레코드가 전쟁으로 문을 닫은 뒤 그 설비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곳이 바로 유니버살레코드이기 때문에,<sup>52)</sup> 나름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정훈국’ 음반 딱지 테두리에도 이와 완전히 같은 표기가 나타나므로, 그것이 바로 1955년 3월 이후 유니버살레코드에서 ‘국방부 정훈국’ 음반을 제작한 것임을 알려 주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유니버살레코드 제작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 유니버살레코드 광고, 『서울신문』(1954년 9월 25일)

51) 유니버살레코드 광고, 『경향신문』(1955년 3월 20일)

52) 박시춘, “나의 이력서 35”, 『한국일보』(1978년 4월 13일)

\* 음반번호 0001-0002

<6·25의 노래>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 이상춘(李想春)·김천애(金天愛) 노래,  
육군교향악단 반주

<칠월의 노래>

양명문(楊明文) 작사·낭독, 육군교향악단 반주, 간주곡 <내 조국>

\* 음반번호 0003-0004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5-0006

<용진가>

모월천(毛月泉) 작사, 김동진 작·편곡, 김동진·손윤렬(孫允烈)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바다로 가자>

손원일(孫元一) 작사, 홍은혜(洪恩惠) 작곡, 김동진 편곡, 황병덕  
(黃炳德)·손윤렬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 음반번호 0007-0008

<비행 행진곡>

최용덕(崔用德) 작사, 김성태(金聖泰) 작곡, 김동진 편곡, 황병덕·  
이보림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해병대의 노래>

이화 작사, 윤용하(尹龍河)작곡, 황병덕·이보림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유니버살레코드 위탁 제작 음반에 비해 오아시스레코드 위탁 제작 음반은 보다 간단하게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음반 판매업을 하던 봉철(奉喆)이 녹음 기술자 이성희(李成熙)와 함께 설립을 주도하고 원지복(元知福)이 대표를 맡았던 오아시스레코드는 유니버살레코드보다 약간 늦게 1954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

립되었다.<sup>53)</sup> 오아시스레코드의 ‘육군레코드’는 유니버살레코드의 ‘국방부 정훈국’ 음반과 달리 앞뒷면 번호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00002, 00005, 00007 세 장의 수록 내용이 현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일곱 장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며, 자료 발굴 여하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야영가>와 <전선의 밤>이 수록된 00002 음반에서는 ‘육군본부 정훈감실 제작’, ‘오아시스레코드회사 납품’이라는 표기가 확인되며, <군기 진작의 노래>와 <나가자 북진의 길로>가 수록된 00005 음반(필자 소장)에는 그와 달리 ‘육군본부 정훈감실’ 표기만 나타난다. 그리고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나”로 시작하는 <승리의 노래>와 <전선의 아침>이 수록된 00007 음반에는 ‘제정 육군본부 정훈감실’, ‘오아시스레코드주식회사 제작’이라는 또 다른 표기가 보인다. 00002 음반에는 날짜 표기가 따로 없지만, 00005 음반에는 단기(檀紀) 제작 일자가 ‘4289 5.1’(1956년 5월 1일)로, 00007 음반에는 ‘4290 6.25’(1957년 6월 25일)로 적혀 있으므로, 세 음반이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서 표기도 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표기 내용과 제작 시기는 달라도 음반 딱지 디자인은 동일하므로, ‘육군레코드’는 시종 오아시스레코드에서 위탁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아시스레코드에서 제작한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00001

수록 곡 미상

53) 오아시스레코드 설립 경위에 관한 내용은 2009년에 필자가 수행한 봉철 인터뷰 녹음과 봉철이 직접 작성한 메모에 담겨 있다.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문 끝에 고려레코드사에 있던 원판 기사 이성희 만나. 6.25사변으로 문 닫음. 둘이서 오아시스라는 간판 하에 출발하려 할 때 원판 기사 이성희와 같이 있었던 고려레코드사 상무 원지복 외 임원 3명이 찾아와 같이 하자고 사정. 이성희 역시 모시던 분이라 같이 했으면 하여서 1954 주식회사로 발족함”.

\* 음반번호 00002

<아영가>

김희조 지휘, 이보림 노래, 서울사범합창단 합창, 육군제2군악대 반주

<전선의 밤>

김희조 지휘, 변성엽(邊成燁) 노래, 서울사범합창단 합창, 육군제2군악대 반주

\* 음반번호 00003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04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05

<군기 진작의 노래>

강위규(姜渭揆)<sup>54)</sup> 작사, 이흥렬 작곡, 김동진 편곡, 김노현(金魯鉉)·서경숙(徐瓊淑) 노래, 육군교향악단 반주

<나가자 북진의 길로>

김교 작사, 김성태 작곡, 김동진 편곡, 김노현·서경숙 노래, 육군교향악단 반주

\* 음반번호 00006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07

<승리의 노래>

이선근<sup>55)</sup> 작사, 권태호 작곡, 임만섭(林萬燮) 노래, 김동진 지휘, 김동진실내악단 반주

<전선의 아침>

김동진 작·편곡, 김동진 지휘, 김동진실내악단 반주<sup>56)</sup>

54) 음반 딱지에는 '강위규'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55) 음반 딱지에는 '이성근'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56) 노래가 아닌 연주곡이므로, 음반 딱지에도 '군악'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가운데 00005 음반 수록 곡 〈군기 진작의 노래〉와 〈나가자 북진의 길로〉는 앞서 1955년에 육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실시한 ‘신군가’ 가사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었다.<sup>57)</sup> 전체 응모작 1157편 가운데 〈나가자 북진의 길로〉 등 당선작 두 편과 〈군기 진작의 노래〉 등 가작 네 편이 선정되었는데, 음반 발매가 확인된 두 곡 외에 다른 네 곡 〈유쾌한 사병〉, 〈조국 수호의 노래〉, 〈명령만 내린다면〉, 〈진중의 노래〉 또한 ‘육군레코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내용을 알 수 없는 00004, 00006 음반에 이들 네 곡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음반회사 다섯 곳에서 제작한 군가 SP음반은 최소한 20장이 확인된다. 음반에 따라 한 쪽에는 군가 아닌 대중가요나 시 낭독이 수록된 경우도 있으므로 군가 작품으로 치면 40곡이 되지 않지만, 음반이 향후 얼마든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1960년대 이후 LP음반에 수록된 군가의 양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분단·전쟁·빈곤으로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던 1940-50년대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정도 군가 음반이 제작된 것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군가의 제작과 보급이 군대 내부 일로 한정될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요구가 있었기에, 초기 군가 음반 제작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은 매우 다채로웠다. 이영순·이선근·김희조 등 현역

57) “〈나가자 북진의 길로〉 신군가 가사 당선 작품 발표”, 『동아일보』(1955년 4월 29일)



군인 신분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간 음악계에서 제작·창작·녹음에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상업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군가 음반을 만드는 데에 앞장섰던 오리엔트레코드의 이병주나 인기 대중가요 작곡가이면서도 전시에 누구보다 많은 군가를 만든 박시춘의 경우는 시대의 상황, 개인의 지향과 역량이 들어맞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통상 가곡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지만 1950년대 군가 창작과 음반 녹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동진의 경우에는 시대의 상흔을 살필 수도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온 월남 음악가에게 쏠린 사상적 의혹의 눈길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김동진에게 군가 작업은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sup>58)</sup>

이 글에서는 1940-50년대 군가의 모습을 음반 측면에서 주로 살폈지만, 당시 군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음반 외 다른 자료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주로 가사만 전달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군가집 또는 군가를 포함한 노래책이 음반보다 훨씬 더 많이 간행되어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또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라디오 방송 역시 군가 보급 매체로서 음반 못지않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한 다양한 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군가는 군내 문화의 일부를 넘어 시대 전체의 모습을 반영한 문화라는 보다 비중 있는 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8) 김동진 구술, 전정임 채록, 앞의 책, 57-61

## 〈참고문헌〉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마산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영남일보』  
『조선일보』  
『평화일보』  
『한국일보』  
『한성일보』  
『삼천리』

- 이준희, “1940년대 후반(1945-1950) 한국 음반산업의 개황”, 『한국음반학』 14호(2004): 139-163, <http://uci.or.kr/G901:A-0007759785>
- \_\_\_\_\_, “1950년대 유성기음반사 연구 - 6대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6호(2006): 191-216, <http://uci.or.kr/G901:A-0007759785>
- \_\_\_\_\_, “일제시대 경성에서 이루어진 음반 녹음의 경위와 의미”,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2009): 43-74, <http://uci.or.kr/G901:A-0006449064>
- \_\_\_\_\_, “6.25전쟁과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 『대중음악 SOUND』 3호, 서울: 가슴네트워크, 2011
- 이진원, “해방 공간의 유성기음반 문화 연구”, 『해방공간 및 그 전후의 음악사』(2014): 29-100, <http://uci.or.kr/G701:B-00113825954>
- 김동진 구술, 전정임 채록, 『2003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3: 김동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박찬호, 『한국가요사 2』, 서울: 미지북스, 2009
- 윤중강·김용현, 『남에는 김희조』, 서울: 민속원, 2002

〈Abstract〉

## 1940-50's SP record of Korean military song

Lee Jun-hue(Jeonju University)

The history of Korean military songs began in earnes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t this time, many new military songs were composed, and there was a movement to record military songs. While the role of recordings in the distribution of military songs is not absolute, early military song recordings from the 1940s and 50s have great archival value as they provide a first-hand account of the sounds of the time, and are important as research objects. The earliest examples of military song recordings appear as early as 1949, and their production expanded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During the war, the Daegu-based Orient Record in particular played a key role, releasing many records. After the war, several Seoul-based record labels continued to produce military music, with Universal Record and Oasis Record, two of the most prominent labels of the 1950s, commissioned by the military authorities. By the end of the 1950s, at least 20 SP recordings of military songs released by various record companie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y were recorded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musicians from the fields of popular music and auteur music. Among them, the roles of Kim Dong-jin, Park Si-chun, and Kim Hee-jo were particularly prominent.

Keywords: military song, SP record, Orient Record, Universal Record, Oasis Record, Kim Dong-jin, Park Si-chun, Kim Hee-jo

